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제620호

지면안내 **03** 사회
온기 잃은 창업 인큐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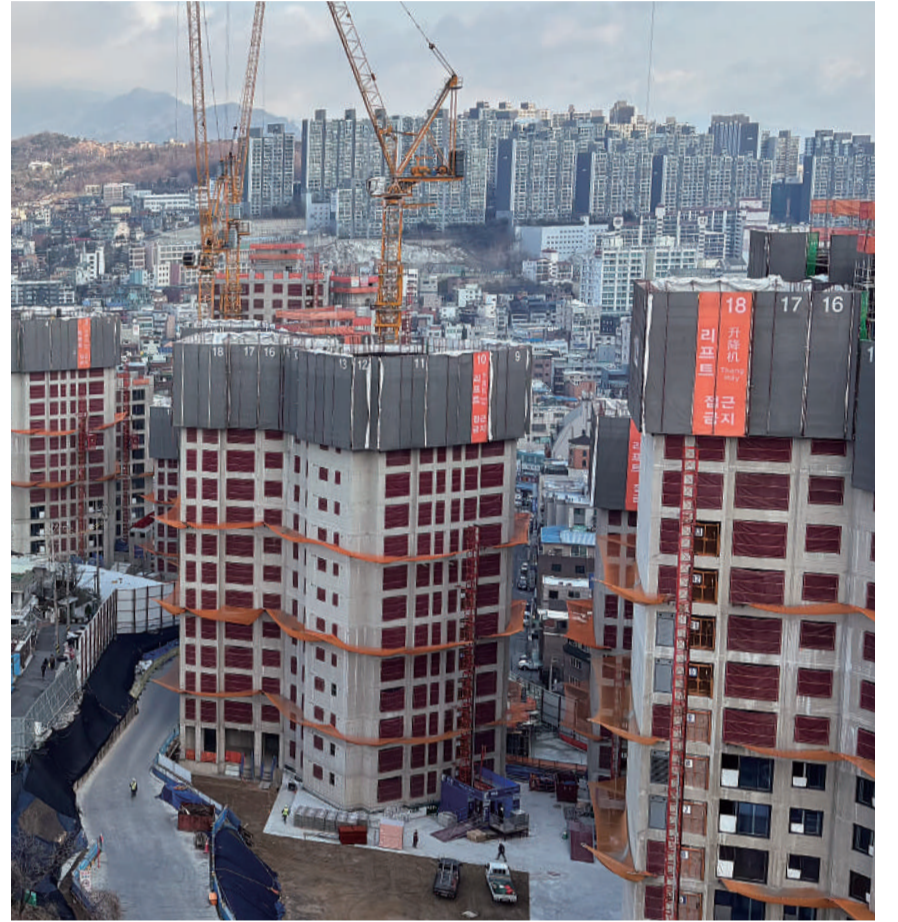
04 문화
다같이 뛰자 러닝 한 바퀴

05 기획
경계를 허문 교육 길을 읽다

08 광고
제20회 사진공모전 현상공모



재개발 또 지연됐다



▲본교 인근 삼선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이 잇따른 완공 지연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완공은 2026년 상반기에서 2027년 3월로 늦춰졌다.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지연과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의 도급비 협상 때문이다. 재개발은 당초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으나 당시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2026년 상반기로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장배(법안사무국) 사무국장은 “현재 통각 안전 강화, 학습 환경 보호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전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홈페이지 불편 사항 개선 예정

본교 대표 홈페이지 개편 이후 발생한 문제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 2월 27일, 본교는 직관적 UX·UI 도입, 모바일 서버 개선, 국문 콘텐츠 영어 변환 기능 추가 등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그러나 접속 불가, 개편 전 공지사항 삭제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관련 사항을 확인 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홈페이지 개편 후 불편 사항을 토로했다. 모바일로 접속 시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UI가 먼저 배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우(사회과학 2) 학생은 “모바일로 접속 시 로딩이 지속되는 등 오류가 있다”며 “주요 서

비스에서 발전기금 등에 밀려 e-class와 종합정보시스템이 첫 화면에 바로 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편 이전 공지사항이 삭제됐다. 개편 이전 공지사항에 접속 시 이전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돼 접속이 불가하다. 김호빈(IT 1) 학생은 “개편 전 업로드된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삭제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체은(글로벌상생홍보팀) 팀원은 “문제점을 인지했으며, 홈페이지 개발 업체와 논의 후 이르면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한성학원 정관·학칙 일부 개정돼

지난 2월 11·26일에 걸쳐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과 『한성대학교 학칙』이 일부 개정됐다.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의 경우 ‘대외협력부총장’ 직위가 신설됐으며, 『한성대학교 학칙』에서는 ▲입학허가 취소 규정 반영 ▲학과 및 학위종 반영 등이 이뤄졌다.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제90조에 대외협력부총장 직위가 신설됐다. 대외·산학협력 업무를 위한 조치다. 대외협력부총장은 글로벌협력처, 산학연구처, RISE사업단 등을 총괄하며 본교의 대외협력 전략을 추진한다. 신인 대외협력부총장으로는 김지현(ICT디자인학부) 교수가 임명됐

다. 최윤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교무위원회 구성이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2인으로 구성되도록 『한성대학교 학칙』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16조의 2의 입학허가 취소 사항이 정비됐다. 입학 전형 과정 부정행위 적발 시 졸업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입학허가 취소 사유가 세분화됐으며, 모집요강 지원자격 미달과 부정행위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에 존재하던 입학취소의 절차 및 처리 과정 사항도 근거가 마련됐다. 김미정(입학관리팀) 부 팀장은 “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상황에 일관된 기준과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별표 2〉에 글로벌인재대학의 학과 및 학위종이 반영됐다. 외국인 전담 학부 ‘글로벌인재학부’가 2026학년도부터 ‘글로벌인재대학’으로 변경돼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기존 글로벌인재학부의 트랙이 학과 체제로 전환되고, ‘글로벌벤처창업학과’가 포함됐다. 이동근(글로벌인재대학 교학팀) 팀원은 “기존 트랙에서 학과 체제로 변경된 단위의 교육과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한성대 학군단

2026년 3월 3일 ~ 4월 26일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 원!

장교로 임관, 리더십 함양

훈련비 약 300여만원 지급

품위유지비 매월 28만원

학점기반 장학금 3.5이상 100% 지급

한성대학교 기숙사 우선 지원

1년마다 국내/해외 전·사적지 탐방

미국 텍사스 A&M대학 리더십 연수

타 학군단과의 교류 및 선배들과의 만남

여후보생 장학금: 매 학기 100만 원



봄바람과 함께 찾아 온 동아리 박람회

1학기 동아리 박람회 성황리에 마무리

‘2026학년도 1학기 동아리 박람회(이하 동아리 박람회)’가 지난 4·5일 양일간 교내 전역에서 열렸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동아리 홍보와 새내기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와 달리 개강 축제는 열리지 않았다.

동아리 박람회에서는 38개의 동아리가 재학생을 맞이했다. 각 동아리 부스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됐다. 동아리연합회 ‘VYNE’의 부스를 포함해 ▲공연예술부와 왕산악, 들불, 탈패, 한음, 낙산극회, TRIAX, NOD, Brillante, 4호선마이크 ▲종교분과 CCC, UBF, 로사리오, IVF ▲학술분과 경제학연구회, H-LEP, 썬들, FLASH, DC&M, ASPIRE, TeamODD, TIME, UMC ▲체육분과 HTM, TURTLES, UP, 피닉스, 버팔로, 한검회, 한열 ▲평면예술분과 P.I.G, 이무기, 영화다숨, 매니니로, 한성타이포 ▲취미봉사분과 유스호스텔, 해랑사리우, 별조각, 낭동이 참가했다.

밴드 동아리 ‘들불’은 일렉트릭 기타와 통기타를 직접 연주해 보는 악기 체험과 실제 피크를 활용해 나만의 키링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낙산관 대강당에서 ‘실리카겔’, ‘유다빈밴드’ 등 유명 밴드의 곡을 연주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엄지훈(인문 2) 들불 회장은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피크 키링 만들기 활동이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며 “많은 학우가 들불을 포함한 여러 동아리에 가입해 추억을 남겼으면



사진: 김산 기자

▲포즈를 취하는 동아리 박람회 참여 학생들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동아리 ‘CCC’는 예수의 가르침을 네 가지 상징으로 시각화한 ‘더포(The Four)’를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상징들의 순서를 맞히는 퀴즈와 함께 드림을 활용한 순발력 게임이 부스에서 진행됐다. 퀴즈 및 게임 결과에 따라 더포가 새겨진 키캡 키링 등의 상품이 제공되기도 했다. 김인(컴공 2) CCC 회장은 “십자가, 하트 등 더포를 통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했다”며 “신입생의 참여율이 높아 기쁘다”고 전했다.

금융투자 동아리 ‘FLASH’는 과거 주식 차트를 분석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미래주가 예측 활동과 기업 로고를 빠르게 맞추는 퀴즈를 기획했다. 임세훈(사회과학 4) FLASH 회장은 “작년보다 부스 방문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 성황리에 부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일상 속 친숙한 기업 로고를 접하니 반가워하며 게임을 즐겼다”고 전했다.

태권도 동아리 ‘한열’은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는 태권도 상식 퀴즈와 발차기 체험을



사진: 김혜윤 기자

▲‘한열’ 부스에서 발차기를 하는 학생



사진: 임지민 기자

▲‘CCC’ 운영진이 부스를 소개한다.



사진: 임지민 기자

▲‘왕산악’이 낙산관에서 공연 중이다.



사진: 김산 기자

▲‘썬들’ 부스에서 학생들이 퀴즈를 풀고 있다.

진행했다. 발차기 체험은 발차기 성공 횟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 상위 3명의 학생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했다. 김동현(IT 4) 한열 회장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낮은 활동 위주로 부스를 구성했다”며 “학생들이 준비한 활동에 즐겁게 참여해 뜻깊었다”고 말했다.

사진 동아리 ‘P.I.G’는 부원들이 직접 촬영한 작품을 퍼즐로 만들어 맞추는 사진 퍼즐 맞추기와 현장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해주는 폴라로이드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은 부스에 방문한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현민(사회과학 3) P.I.G 회장은 “동아리 박람회에 새내기들이 많이 참여한 만큼 사진을 통해 청춘을 기록하자는 취지로 준비했다”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신입생들의 밝은 표정을 직접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물 복지 동아리 ‘낭동이’는 탐정 콘셉트의 부스로 동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게임을 진행했다. 컵속에 숨겨진 사료의 위치를 찾는 활동과 동물의 신체 일부 사진만 보고 이름을 맞추는 퀴즈를 기획했다. 부스에 참여해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부원들이 직접 제작한 동물 캐릭터 스티커와 소정의 간식이 상품으로 증정됐다. 이유림(ICT 2) 낭동이 회장은 “탐정 콘셉트를 활용해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귀엽고 활력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동아리 박람회를 즐기는 새내기들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연합회 ‘VYNE’ 부스에서는 7.7초 맞추기 게임이 진행됐다. 스톱워치의 시간을 7.7초를 맞춰 멈춘 학생에게는 ‘더베이크 기프트콘’ 등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또한 각 분과별 동아리 체험을 통해 습득한 스티커에 따라 상품도 지급됐다. 스티커 3개를 받은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제공됐으며, 스티커 6개를 모두 획득한 학생에게는 ‘영수증 사진기’를 통해 영수증 모양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한 이수빈(인문 1) 학생은 “궁금한 동아리가 많아 고민이었다”며 “동아리 박람회의 부스 활동이 가입할 동아리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수지(인문 1) 학생은 “큰 규모와 다양한 운영 방식을 보니 대학생이 된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동아리 박람회를 기획한 황유빈(뷰티 4) 동아리연합회장은 “많은 학우가 참여해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며 “동아리 박람회 이후에도 다양한 행사가 계획돼 있으니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상상 스테이지 개소 상상 스테이지(SangSang Stage) 개소식이 지난 16일 인성관 1층 상상 스테이지 입구에서 진행됐다. 상상 스테이지는 기존 노후화된 동아리 연습실 환경을 개선한 공간으로 학생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동아리 소속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개소식에는 이창원 총장, 장명희 교학부총장, 김지현 대외협력부총장, 정윤지(문공 4) 총학생회장 등 교내 인사가 참여했다. 상상 스테이지는 ‘액팅룸(Acting Room)’과 ‘사운드룸(Sound Room)’으로 구성됐다. 액팅룸은 신체활동 연습 특화 공간으로 전면 거울, 스피커, 스포츠 매트 등을 갖췄다. 사운드룸은 소리예술 특화 공간으로 사방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이에 학생들이 기존보다 쾌적하게 문화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총장은 “재학생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함양이 이뤄질 바란다”고 전했다. 최지훈(사회과학 4) 들불 부회장은 “상상 스테이지의 시설이 방음을 포함해 환기, 넓이 등 쾌적하게 구성돼 있어 동아리 연습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SW중심대학 에세이 공모전 열린다

‘2026학년도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대학 에세이 공모전(이하 공모전)’ 참가자를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공모전은 SW중심대학 참여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역량을 성찰하고 향후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고는 내부 심사를 거쳐 최대 3편의 작품을 최종 출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지원이 주최하고 SW중심대학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본교 소속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재학생 및 휴·졸업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SW중심대학 사용설명서’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입학 전 SW를 접하게 된 계기부터 입학 후 경험한 교육·프로그램 활용 사례, 역량 강화 및 진로 변화 과정 등을 에세이 형식으로 서술해 SW중심대학사업단 메일로 제출한다. 작성 시 ▲글자 수 1,000자~3,000자 ▲관련 사진 5장 내외 첨부 ▲사진 포함 전체 분량 3페이지 이내 ▲PDF 파일 변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하

나, 활용 범위와 방식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사 결과는 5월에 발표되며, 시상은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 ▲AI 선정상(1명)을 선발한다. SW중심대학협의회장과 함께 순위에 따라 각각 인당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단 AI 선정상은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상식은 11월 열리는 ‘SW인재 페스티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인원 전원에게 비교과 포인트 20pt가 지급되며 30인을 추천해 무선 이어폰을 제공한다. 또한 본교 대표로 선발돼 본선에 진출하는 최종 3인에게는 ‘교외 비교과 활동’이 추가로 인정돼 추후 별도의 비교과 포인트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본교의 ‘AI·SW 산학 연계프로젝트 해외연수’ 서류 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조소현(SW중심대학사업단) 팀원은 “에세이 작성을 통해 SW중심대학과 함께 한 본인의 성장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한성대신문

한걸음 더 가까이 독자에게로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온기 잃은 창업 인큐베이터

창업 기업의 따뜻한 요람이 돼야 할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이하 BI)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BI는 정부와 대학 등이 협력해 초기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일부 BI가 창업 기업을 보육하기는커녕 부실한 지원과 과도한 부담금 징수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BI는 창업 기업에 시설과 설비 제공, 세금 감면 등 사업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자의 성공 확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전국 200여 개의 BI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약 13만 개의 창업 기업이 이들의 손을 거쳤다. 김상화(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는 “BI는 제반 창업 조건이 취약한 초기 창업자에게 지원을 지원해 성공률을 높이는 일종의 엔진 역할을 수행한다”며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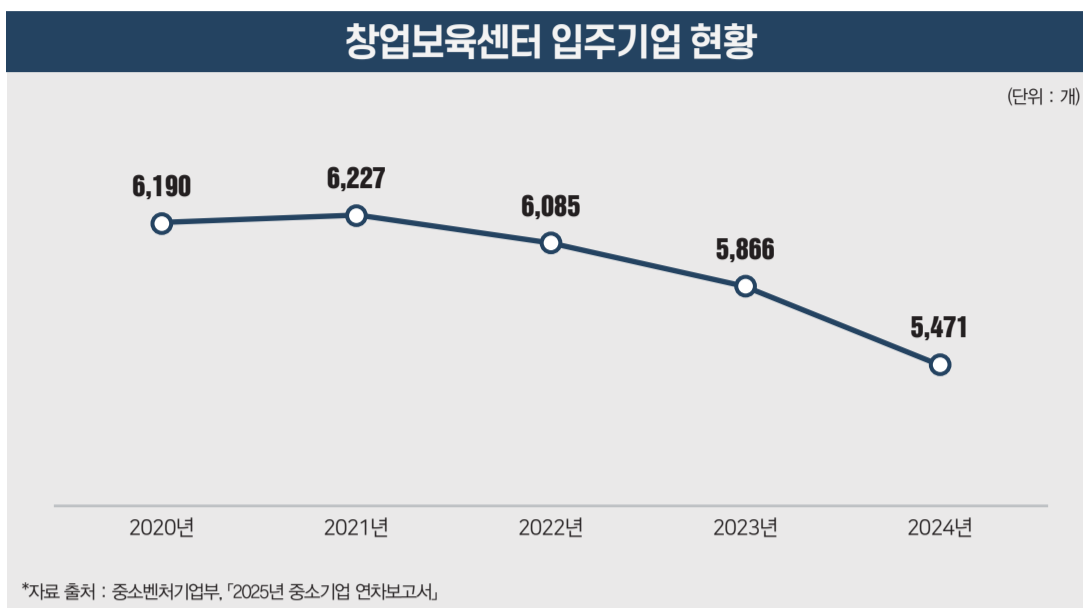
정부·대학·BI는 창업 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대학 등에 부속된 BI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평가·관리를 담당한다. 대학은 공간 제공을 넘어 고가 연구장비, 전문 교수진, 산학협력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창업 환경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BI는 대학 부속기관 형태로 존재하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투자자 연계 등 창업 전반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BI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입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된 창업 기업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의거 기본적인 시설, 설비 지원을 넘어 경영·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판로 개척, 투자 유치 연계 등 사업화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입주 기간은 통상 2~3년으로, 이 기간 창업 기반을 구축하면 이후에는 ‘졸업 기업’으로 전환돼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연계 등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BI 운영 부실로 인해 입주 기업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BI에 입주한 창업 기업은 2020~2022년까지 6,000여 곳에 달했으나, 2024년 5,471곳으로 줄었다.

입주하는 창업 기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BI가 단순 임대업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BI가 입주를 높이기에만 집중하고, 정작 입주를 마친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창성(한국창업보육협회) 선임은 “공실을 얼마나 빨리 채울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거나 입주 후에도 전문적 멘토링 대신 단순 서류 처리에만 급급한 BI가 있다”고 밝혔다.

BI가 창업 기업에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자체의 품질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BI에는 창업 기



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매니저’가 존재한다. 이러한 매니저가 1~2년 단위로 바뀌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창성 선임은 “매니저의 중도 퇴사로 서비스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 등 창업 기업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BI가 창업 기업에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르면 BI는 자립화를 위해 ‘창업보육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창업 기업에게 수익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창업 기업에게 단순 임대료 수준을 넘어 기업 지분 일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창성 선임은 “창업 기업에게 부담금은 성공에 대한 세금으로 인식된다”며 “현재는 부담금이 초기 창업자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BI를 졸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창업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단순 지원 기간 연장만이 이뤄지는 등 사후 지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창업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손운정(한밭대학교 미래창의인재교육원) 교수는 “졸업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조항이 단순한 전화 한 통으로 감음되는 등 사실상 유명 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 기업에 제대로 된 창업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는 BI가 양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창업 기업 육성이란 본래의 목적보다는 창업 기업의 매출액이나 입주율, 고용 인원 등 정량적인 평가지표 관리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평가에 따른 지역별 우수 기업 선정, 부실 기업에 대한 지정 취소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BI를 양적 지표로만 평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창업 기

업보다 당장 좋은 성과가 나오는 창업 기업만 선호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부연했다.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 하락은 매니저의 과도한 업무량에서 기인한다. 한 명의 매니저가 5~10개 가량의 창업 기업을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20~30개 기업을 맡겨야 많게는 50개가 넘는 기업을 담당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가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약 100개의 창업 기업이 입주한 BI에 단 2명의 매니저가 모든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던 사례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창업 기업을 향한 과도한 지원 및 부담금 요구는 정부의 사업비 지급 기준이 변경된 점이 꼽힌다.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모든 BI에 일정한 금액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BI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이 대폭 축소됐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및 지급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 127억 원에 달했던 BI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84억 원, 2025년 약 71억 원으로 삭감되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손 교수는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 탓에 우수 평가를 받던 BI에 주어지는 사업비가 줄었다”며 “사업비가 줄면서 창업 기업에 부담금을 더욱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졸업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미흡의 원인으로 사업 지원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이 꼽힌다. 졸업 기업은 BI에서 벗어나 곧바로 사회로 진출한다. 지자체 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거나 BI 입주 기간을 단기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모두 개별적으로 이뤄져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대학·BI가 체계적으로 연계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창성 선임은 “현재처럼 정부와 대학의 지원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순히 지원 기간만 연장

해 주는 방식은 졸업 기업의 자생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부연했다.

BI가 창업 기업 지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해결책이 대두된다. 현재 창업 기업의 매출액이나 고용 인원 등 정량적 수치에만 치중돼 있는 평가 기준을 창업 기업의 실질적 성장 지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 교수는 “실질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과 매니저의 역량, 기업 성장 등을 반영하는 지표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매니저가 본연의 보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니저의 인원에 대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BI에 입주한 창업 기업 수에 비해 매니저 수도 늘리는 방식이다.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창업 기업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업무 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손 교수는 “인력 확충 외에도 과도한 행정 업무, 단기 계약직 위주 고용 계약 등 역시 해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BI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사업비 지급 방식을 기존의 방식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급을 통해 우수한 BI의 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김 교수는 “BI가 양적 팽창기에서 질적 재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센터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초기 창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BI 측의 과도한 지원 요구나 창업보육부담금 징수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이창성 선임은 “징수 한도 등을 규정하는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대학·BI 3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Post-BI’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BI와 유사한 지원을 이어 나가는 기관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성, 전북 등 소수의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후속 지원 체계를 정부, 대학에도 적극 도입해 졸업 기업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견해다. 김 교수는 “정부와 대학, BI가 긴밀히 협력해 판로 개척과 투자 유치 등 졸업 기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창업보육센터가 단순한 임대 공간의 기능을 넘어, 창업자와 함께 호흡하는 전문적인 동반자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성 선임은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사람 중심의 보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핵 협상 26시간 후, 포화에 휩싸인 이란

또다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 28일 오전 10시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 거점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같은 날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한 즉각 반격에 나서며 군사 충돌을 격화시켰다. 이번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과 주요 에너지 시설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제3차 핵 협상이 결렬된 지 불과 26시간 만에 발생한 일이다. 해당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에게 핵 시설 완전 폐기와 우라늄 농축물 국외 이송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인 대응을 고려할 것을 공개적으로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완전 폐기 요구를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준비해둔 군사 전력을 동원해 이란 타격을 감행했다. 최기일(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는 “이번 전쟁은 협상 결렬의 결과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전제로 협상과 압박이 동시에 나타난 구조”라며 “외교와 군사 대응이 분리되지 않은 채 병행된 점이 이번 사태를 빠르게 군사 충돌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공습 당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됐다. 이란의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정

보부 장관 등의 고위 인사도 잇따라 사살됐다. 학교나 병원, 민간과 군사 시설 등도 가리지 않고 타격을 입었다. 이혜정(중앙대학원 정치국제학부) 교수는 “공습을 통해 정권 핵심 인사와 통제 체계를 직접 겨냥해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이란은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중동 일대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관련 군사시설에 공격을 가했다. 이희수(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는 “이란은 미국에 강력하게 대응해 추가 공격을 억제하려는 의지와 함께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배경에는 오랜 핵 갈등이 자리한다. 2015년 미국과 이란 등 주요국은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시설 가동을 제한하는 등의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은 해당 합의가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해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22일, 미국과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란 내 3곳의 핵시설을 폭격하며 선제 타격을 가했다. 이번 공습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최 교수는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 자체

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처럼 보인다”며 “지도부와 핵심 거점을 동시에 겨냥해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 배경에는 중동 내 영향력 유지라는 판단이 자리한다. 미·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 강화가 중동 내 힘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동시에 이란의 영향력 확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동 동맹 체제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 개발 억제와 군사적인 견제를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혜정 교수는 “미·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견제해왔다”고 전했다.

전쟁의 범위가 확장되며 이번 사태가 장기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두바이 국제공항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공항 인근 연료 저장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항공편 운항이 지연·취소됐다. 이어 지난 19일 이란이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생산 지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공격 범위를 넓혔다. 최 교수는 “이란이 친미 국가이자 미국과 경제·안보적으로 밀접한 두바이를 겨냥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압박하려는 의도와 맞물린다”고 덧붙였다.

공격 범위가 확장되는 가운데, 이란의 해협을 앞세운 경제 압박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수 국가의 상선과 유조선이 항로를 변경하거나 운항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가 위축되며 해상 물류 전반에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희수 교수는 “이란은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에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서방의 군사 행동에 부담을 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동 사태의 충격이 한국 경제로 번지고 있다.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와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국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동 사태 이후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2월 1,692원에서 3월 1,833원으로 급증했다. 중동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원유 수입 구조상 에너지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혜정 교수는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중동 대응 방안을 운영하며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향후 국제 유가 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국내 물가와 산업 전반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다같이 뛰자 러닝 한 바퀴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 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자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러닝 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했다. 길을 걷다 보면 대학가 주변과 도심 하천 산책로에서 러닝화를 신고 달리는 청년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러닝 용품 대여 매장부터 자신의 호흡에 맞춰 달리는 ‘존2 러닝’, 지도 위에 그림을 완성하는 ‘GPS 아트 러닝’ 그리고 달려며 버터를 만드는 ‘버터런’까지. 청년들이 이토록 러닝에 흠뻑 빠져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운동화를 고쳐 신고 달려봤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러닝 준비... 땀!
 도심 곳곳을 달리는 발걸음은 이제 일상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진행된 ‘서울마라톤’에는 4만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며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조기 마감됐다. 2021 서울마라톤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마라톤의 2030세대 참가자는 2016년 31.1%에서 2021년 64.4%까지 증가했다.
 러닝에 필요한 것은 두 다리와 의지뿐이다. 별도의 장비를 무조건적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러닝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높은 접근성 덕에 많은 청년들이 러닝을 일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민철(세종대학교 체육학과) 초빙교수는 “러닝의 높은 접근성은 청년이 부담 없이 러닝을 일상 속 자기관리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요인”이라고 말했다.
 성취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러닝 열풍의 핵심 요인 중 하나다. 러닝은 목표 거리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기 쉬운 구조를 지닌다. 단기간 내 개인이 성취를 확인하며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김현일(청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러닝은 1km에서 5km, 5km에서 10km로 거리를 쉽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청년 러너들은 스마트 워치와 러닝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심박수를 확인하며 속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전자기기를 통해 심박수와 페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자신에게 적절한 속도를 찾아간다. 특히 러닝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오디오로 러닝 관련 조언이나 속도를 조절해 주는 러

닝 코치 기능도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에 학생은 “혼자 러닝을 할 때면 러닝 조인 오디오를 들으며 실용적인 도움을 자주 받는다”고 밝혔다.
 러닝크루와 SNS 인증 문화는 러닝을 혼자 아닌 함께하는 활동으로 확장시켰다. 러닝크루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함께 달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 러닝 기록이나 단체 러닝 사진을 공유한다. 신 초빙교수는 “SNS에 러닝 기록을 공유하는 문화는 러닝의 동기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러닝 용품을 ‘찍먹’해 보자
 이제는 준비 없이도 혼자 길을 거닐다 러닝에 바로 돌입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러닝 용품 대여 매장은 도로를 ‘트랙’으로 만드는 만드는 가장 빠른 선택지다. ‘러너 스테이션(Runner-Station)’이나 ‘런 허브(Run-Hub)’와 같은 러닝 용품 대여 매장이 도심 곳곳에 생겨나는 추세다. 이곳에는 물품보관소부터 탈의실, 러닝복과 러닝화까지 마련돼 있다. 다양한 러닝 용품을 직접 사용해 보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몸소 체험 가능하다. 2시간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발란스 북촌 런 허브점’을 운영하는 김성근 대표는 “청년에게 도심에서 손쉽게 장비를 빌려 바로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러닝이 더욱 가까운 활동이 됐다”고 밝혔다.
 기자가 직접 뉴발란스 북촌 런 허브점에 방문했다. 매장에 들어서자 벽면을 채운 러닝화와 기능성 의류가 시선을 끌었다. 바람막이를 하나 골라 착용해보니 착용감이 가벼웠고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러너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듯했다. 기능성과 패션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러닝은 일석 이조의 매력을 갖고 있었다. 기능성 의류 덕분에 움직임이 한층 가벼워져 옷감이 달리는 행위에만 집중했다. 뉴발란스 북촌 런 허브점에 방문한 임수민(25)씨는 “러닝

장비를 갖추는 과정 자체가 운동을 준비하는 의식처럼 작용한다”고 전했다.
내 속도는 내가 정한다
 심장이 터질 듯 전력주하지 않아도 괜찮다. 러닝 초심자를 중심으로 ‘존2 러닝(Zone2 Running)’이 성행하고 있다. 존2 러닝은 심박수를 기준으로 5개의 존으로 구분했을 때 존2 구간에 해당하는 강도로 달리는 방식이다. 최대 심박수의 약 60~70% 수준을 유지하며 달리는 것이 핵심이다. 존2 러닝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지구력 향상과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다. 숨이 크게 차지 않아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다. 김 교수는 “존2 러닝을 활용하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2 러닝의 확산은 러닝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속도와 기록을 강조하던 기존 러닝 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꾸준히 달리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비교와 성과에 대한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속도를 찾으려는 가치관이 반영된 모습이다. 신 초빙교수는 “존2 러닝의 확산은 개개인에 맞는 속도로 달리려는 인식 변화가 청년층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기자가 동료 기자와 함께 성북천에서 존2 러닝에 돌입해 봤다. 평소 유산소 운동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천천히 달리니 부담이 크게 줄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취미로 즐길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함께 달리는 기자와의 대화가 무리 없이 이어지니 산책에 가까운 느낌이다. 박 학생은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며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러닝 방식인 것 같다”고 전했다.

경로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골목 사이사이를 달리다 보면 러닝 어플리케이션에 달린 경로가 선으로 나타난다. 기록된 경로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 색다른 재미가 찾아온다. 한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대원 학생은 “러닝이 지루할 때면 GPS 아트 러닝 코스를 찾아 즐기게 된다”고 전했다.
 GPS 아트 러닝은 단순로운 러닝에 ‘미션’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정 거리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는 목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신 초빙교수는 “목표에 대한 결과물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점이 청년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료 기자와 함께 약 7.8km 거리의 ‘강아지런’ 코스에 직접 도전해 봤다. 코스를 따라 달리다 보니 지도 위에 강아지 모양이 완성됐다. 평소엔 가보지 않던 골목을 누비니 새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거리를 채우며 달릴 때와는 달리 완성된 그림을 확인하는 순간 색다른 성취감이 느껴진다. 도심 사이를 지나는 코스라 횡단보도가 많아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하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김 학생은 “횡단보도가 많으면 호흡 조절이 불편할 수 있지만 초보 러너들에게엔 오히려 좋은 습대가 된다”고 말했다.



▲약 7.8km 거리의 ‘강아지런’ 코스



▲‘버터런’ 후 완성된 버터를 빵에 바른다.

음식이라는 낮은 요소를 더한다. 러닝과 다른 버터라는 요소가 러닝을 콘텐츠로 확장시키며 문화적인 소비 성격을 띠게 한다. 신 초빙교수는 “러닝이 다양한 경험과 결합하며 청년들에게 하나의 문화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자가 직접 버터런에 도전해 봤다. 달리는 동안 버터 재료가 담긴 지퍼백을 지니고 약 1.6km를 달리자 점차 점성이 생긴다. 3km 러닝 종착지에 도착한 끝에 수제 버터가 완성됐다. 종착지에 도착한 후 베이글에 버터를 발라 먹으니 완주의 기쁨과 함께 직접 버터를 만들어냈다는 희열이 느껴진다. 운동의 성취를 직접 확인하니 보상을 받는 듯했다. 평택대학교 광고홍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채연 학생은 “러닝을 통해 운동도 하고 버터도 만드니 일석이조였다”고 전했다.

- 1 ‘존2러닝’을 하며 기자들이 대화를 나눈다.
- 2 ‘뉴발란스 북촌 런 허브점’에서 러닝 용품을 대여한 기자



◀대여한 러닝 용품을 착용한 기자

경계를 허문 교육 길을 잃다

〈편집자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이 같은 흐름 아래 '융합교육'이 등장했다. 둘 이상의 학부나 학과가 결합해 독립적인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변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만든다는 목적하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외연이 넓어진 만큼 그 깊이는 도리어 얕아지고 있다. 융합 교육을 도입한 학과는 개설과 폐지를 되풀이하며 '하루살이'처럼 사라지고 있다. 교육의 깊이가 약화된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해 봤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융합교육은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 개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방식이다. 이는 전자전기, 화학공학 등 실용적으로 학습한다는 목표를 갖던 기존의 응용학문을 넘어, 서로 다른 학과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와 학습 경험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지닌다. 화학과 신소재학, 물리학 등을 결합해 바이오 기술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박원철(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응용바이오학과) 교수는 "융합교육은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단일 학과 지식만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대학에 '융합학과'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6년 정부의 대학 학사제도 개편 방안 공개 후 정부-대학-산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융합체계를 확산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AI를 중심으로 한 융합학과를 전면화하고 있다. 지난해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바탕으로 AI+X, 즉 AI를 기반으로 학문과 산업을 추가로 연계하는 교육 체계로의 재편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융합학과는 문제 해결 역량 함양을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지향한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기초를 이수한 뒤 이를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학과 간 협업을 통해 복합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주열(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융합교육은 기존의 전공

중심적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의 경험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기르고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초에 맞춰 정부는 융합교육의 확산을 위한 대학 재정지원도 전폭적으로 제공하며 융합학과 수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2025년 국가연구개발(R&D)에 약 35조 3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10개의 지역거점 대학을 대상으로 융합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의 융합교육, 현황과 과제: 융합학과 운영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융합학과는 2016년 178개에서 2023년 557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신설되는 융합학과가 어떠한 기준과 정의에 따라 학문을 결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융합교육은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돼 실질적인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념과 기준은 각 대학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며 단순히 기존 교과목을 나열하거나 명칭만 변경한 경우에도 '융합'으로 인정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상술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의 융합학과는 기존 교육과정에 명칭만을 덧붙인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교육의 철학과 목적에 대한 충분한 논의보다 제도와 조직이 먼저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과정이 부실한 모습도 확인된다. 각 교

과목은 산업 연계, 문제해결, AI 활용 역량 등 융합교육의 다양한 목표를 반영해 구성되지만, 이를 학과 차원에서 통합·조율하지 못하고 수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융합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과 형태만 먼저 만들어질 경우 교육내용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과를 통폐합하는 극단적인 방식에 그치기도 한다.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학과를 통합해 교육과정을 병렬적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유예민(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교육편제단위가 신설되는 것보다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융합교육의 실행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면서 단기간 내 폐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추진 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상술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신설되는 융합학과 대비 폐지되는 학과의 비율은 2016년 11.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3년 기준 30.9%에 달했다.

단일 대학 차원에서는 융합교육 추진에 한계가 있어 그 틀을 갖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현재 융합교육은 대학이 개별적으로 연구해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발전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독자적으로 진행돼 대학 자체지원만으로는 융합교육을 연구하고 기획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내에서도 교육을 연구하고 주도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융합학과와 관련 여러 학과의 학문이 합쳐지다 보니 주관부서가 불명확하고 학과 간 협의 구조가 미비하다. 이에 교수자 사이에서도 교육 목표와 내용을 통합하기 어려워 동일 학과 내에서도 교과목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수업 내용이 분절된다는 견해다. 이주열 교수는 "기존 학과 중심의 대학 조직 체계에 교수가 소속되는 구조에서는 융합학과 활성화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형태의 융합학과 증가는 정부의 편중된 지원 방식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지원체계는 대학이 융합학과를 도입하면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융합학과와 관련 교육체계 연구, 인프라 마련 등 재정적 소비가 커 사전에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사후 지원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우선 학과를 통합한 후에야 교육체계를 모

색한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교수는 "정부의 평가 방식은 대학이 새로운 융합학과를 빠르게 도입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융합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문제 해결 능력이나 학문 간 협력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융합학과와 낮은 지속성은 대부분 정부 재정 지원 중심으로 추진된 융합교육 도입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대학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융합교육 도입 유무를 고려하기에 도입했다는 내용이다. 조민호(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융합교육이 현장에서 활발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교육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간 협력 방안도 제시된다. 대학 간 협력해 공동 교육과정 설계 및 학과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 연구위원은 "대학들은 상호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간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COSS, HUSS 등의 대학 간 융합교육 컨소시엄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해 꾸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내에서 융합교육의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원활히 추진하려면, 기존 학과 중심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명의 교수자를 여러 학과에 소속시켜 교수자 간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교수는 "기존 학과 체계를 벗어나면 융합학과와 학사제도 유연화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융합학과 지원 방식을 사후 지원 중심에서 사전 계획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대학이 융합학과를 설립하기 전에 교육과정, 연구 인프라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재정과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융합교육의 범위, 수준,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조건과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평균적인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앞으로의 대학 평가체계는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기르게 됐는지와 같은 질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도별 융합학과 폐지 추이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 융합교육, 현황과 과제: 융합학과 운영을 중심으로」



내 손 안에 프라이버시, 빛의 흐름을 설계한 혁신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울트라'는 측면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Privacy Display)'를 적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정면을 제외한 상하좌우 방향에서 화면을 보지 못하게 시야각을 제한한다. 필요시에는 스마트폰 화면 일부 영역에만 선택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하드웨어의 혁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의 구현은 빛의 방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 유기 발광층 ▲ 컬러 필터 ▲ 커버글라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유기 발광층에는 작은 소자들이 픽셀(Pixel)** 단위로 빛의 삼원색인 적색·녹색·청색(RGB) 빛을 스스로 방출한다. 화면에 구현되는 색은 삼원색의 조합으로 표현되므로 픽셀들은 각각의 색을 합성해 최종적으로 화면을 형성한다.

이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빛이 퍼지는 정도가 다른 두 종류의 픽셀을 함께 사용해 시야각을 조절한다. 빛이 넓게 퍼지는 '와이드 픽셀'과, 좁게 퍼지는 '내로우 픽셀'을 번갈아 배치하는 방식이다. 먼저 유기 발광층에 위치한 와이드 픽셀은 빛을 사방으로 방출하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상하좌우 어느 방향에서나 픽셀이 내는 빛을 관측할 수 있다. 유승협(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OLED 디스플레이들은 통상 와이드 픽셀만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내로우 픽셀은 시야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빛이 직선으로만 나가도록 설계돼 있으며, 빛을 흡수하는 '블랙 매트릭스'가 픽셀 주위를 높이 둘러싸 옆 방향으로 퍼지는 빛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블랙 매트릭스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어두운 검은색 안료를 발라 광흡수에 용이한 차광막에 해당하므로, 픽셀의 발광 높이보다 훨씬 더 높게 쌓도록 설계하면 빛의 방향이 일직선으로 고정될 수 있다. 박재영(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내로우 픽셀의 주변에는 빛을 막는 높은 벽이 형성돼 있어 정면에서 볼 때만 화면이 보이고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 : 삼성전자

▲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모드 적용 전후



사진 제공 : 삼성전자

▲ '갤럭시 S26'의 기능을 체험하는 이용자

기기 내부에 픽셀들이 '병렬 구조'로 배열되는 점도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의 핵심 구조를 이룬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와이드 픽셀과 내로우 픽셀은 모두 빛을 내는 상태다. 이때 프라이버시 모드를 켜면 와이드 픽셀의 불이 꺼지며 시야각이 좁은 내로우 픽셀만 남아 직선에서만 화면이 보이게 되는 원리다. 박 교수는 "평소에는 와이드와 내로우 픽셀 모두 활성화돼 넓은 시야각에서 화면을 볼 수 있고, 프라이버시 기능을 작동시키면 와이드 픽셀이 꺼져 빛이 정면으로만 나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블랙 매트릭스를 높이 쌓게 되면 기기 내부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쌓인 블랙 매트릭스의 높이만큼 내부 공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는 편광판을 대체해 두께를 줄일 수 있는 'LEAD'가 적용됐다. LEAD는 흔히 무편광 기술이라고 불리는, 편광판을 대체하는 기술이다. 편광판은 기기 내부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얇은 필름이다. 밝은 낮에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기기 내부로 외부 빛이 들어와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막도록 설계된 장치다. 유 교수는 "빛이 편광판을 통과할 때는 절반 정도의 빛 손실이 일어나 외부의 빛뿐만 아니라 내부의 발광력도 감소시킨다"며 "무편광 기술을 사용할 경우 빛이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빛의 손실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LEAD는 기존의 편광판을 제거하는 대신 '컬러 필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부의 빛을 차단한다. 컬러 필터는 백색광에서 빛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필름이다. 백색광은 적색·녹색·청색 등 다양한 파장의 빛이 섞여 만들어진 빛으로, 여러 색이 혼합된 상태다. 삼원색의 픽셀 위에 같은 색의 컬러 필터가 위치한다. 이후 픽셀에 해당하는 색의 빛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컬러 필터가 자체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빛의 반사를 줄인다. 동시에 픽셀이 발광하는 빛은 손실 없이 화면 밖으로 내보내 화면의 밝기와 색 표현을 유지한다. 유 교수는 "컬러 필터는 빨간색 셀로판지로 사물을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필름이 특정 색의 빛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걸러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원리는 빛의 파장을 통해 발현된다. 빛은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색으로 발현되며, 각각의 색은 고유한 파장 범위를 가진다. 컬러 필터는 이 차이를 이용해 특정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고 그 외 파장의 빛은 흡수한다.

선택적인 흡수는 필터를 구성하는 분자 구조에서 비롯된다. 분자 내부의 전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들어오면 흡수한다. 이 때문에 외부의 빛이



사진 제공 : 삼성전자

▲ 관람객들이 '갤럭시 S26 라이브쇼'를 감상한다.

들어올 때 전자와 일치하는 파장이면 이를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파장이 맞지 않는 빛은 그대로 통과시킨다. 이처럼 선택적으로 빛을 걸러내는 과정으로 인해 특정 색의 빛만 남게 된다. 박 교수는 "컬러 필터는 가지고 있는 전자가 빛의 에너지와 비슷하게 맞춰져 빛의 파장을 대체로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컬러 필터는 같은 색을 가진 외부 빛은 못 걸러낸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블랙 매트릭스와 함께 '광공진기(光共振器)'가 사용된다. 광공진기는 픽셀 내부에 형성된 매우 얇은 층으로, 빛이 화면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두 반사층 사이에 머물도록 만든 구조다. 쉽게 말해, 빛이 곧바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픽셀 내부에 잠시 갇혀 여러 차례 반사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선글라스가 특정 색의 빛을 선택적으로 걸러내는 원리와 유사하다. 유 교수는 "현악기에서 손으로 줄을 누르는 위치에 따라 소리의 진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픽셀도 색마다 두께를 달리해 각자의 파장에 맞는 빛을 붙잡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광공진기 내부에서는 빛이 여러 차례 반사되며 서로 다른 경로를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빛의 위상***이 어긋난다. 위상이 180도 차이 나는 빛끼리 만날 경우 상쇄현상****이 일어나 빛이 소멸된다. 유 교수는 "빨간색 빛이 빨간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적색 빛이 적색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적색 픽셀 내부에서 공진이 일어나 빛이 방향을 꺾는다"며 "이렇게 꺾인 빛은 서로 위상차를 만들어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컬러 필터와 공진기가 놓친 빛은 블랙 매트릭스가 흡수한다. 컬러 필터와 공진은 픽셀이 위치한 부분의 빛 반사만 막기 때문이다. 컬러 필터를 통과한 빛이 화면 밖으로 다시 반사되면 그 반사각에 위치한 블랙 매트릭스가 빛이 화면을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하는 원리다.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블랙 매트릭스, 컬러 필터, 픽셀 영역의 넓이를 잘 설계해 외부에서 오는 빛이 반사돼 나가는 비율을 최대한 줄인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결제와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화면 보안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픽셀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기술이 적용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단순한 화질 경쟁을 넘어 보안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을 넘어 노트북, TV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유 교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굉장한 진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해당 기능을 탑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OLED 디스플레이 :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 물질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픽셀 :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점

***위상 : 어떤 사물이 가지는 위치나 상태

****상쇄현상 :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이 만나 진폭이 서로 줄어들거나 이이 되어 파동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소멸하는 현상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속고 없는 AI 융합교육의 과속

최근 대학가에 'AI 융합교육' 열풍이 거세다. 강의계획서 곳곳에 'AI'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AI+X 교과목과 융합전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려는 시도 자체는 자연스러우나, 충분한 점검과 설계 없이 속도만 앞세운 채 밀어붙이는 행태가 반복되는 듯하다.

융합교육은 본래 서로 다른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사회의 모습은 그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융합학과의 폐지율은 2016년 11.8%에서 2023년 30.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기존 교육과정에 명칭만 덧붙인 채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겉으로는 '융합'을 표방하지만, 이를 지탱할 교육적 토대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본교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학기 AI+X 교과목을 확대하고 기존 전공 교과목에도 'AI'를 덧붙이는 등 융합교육 체계가 개편됐다. 그러나 강의실 안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부 교과목은 기존 교육과정을 유지한 채 과목명만 변경됐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도 AI 활용 여부를 학생 개인의 선택에 전가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맞물린 영향일까. 성급하게 목표와 항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학생들에게 맡기

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다. 그러나 교육은 항목을 나열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설계되고, 그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방식은 방향을 먼저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운영을 끼워 맞추는 모습에 가까워 보인다.

대학 교육의 본질은 '생산력'에 방점이 찍히지 않는다.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전략을 설계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판단 기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야말로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진다.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빠르게 생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경험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구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본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성, 한성으로 모여드는 세계"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뀐 교과목과 형식적인 융합이 반복되는 강의실에서, 학생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라는 이름을 덧붙이는 속도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다. 본교가 외형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융합교육'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승희 편집국장



표류하는 평등의 언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서울역 일대에서 성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집회 행진이 열렸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외 31개 시민단체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며 구조적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을 국정 기조로 제시했으나, 정작 정책 논의의 전면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고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성평등은 정책의 대상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채 선언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성평등을 향한 현장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하길 바란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기자수첩

올해 상반기 완공 예정이던 재개발이 2027년 3월로 또다시 미뤄졌다. 이번 지연은 처음이 아니다. 당초 2024년 완공이었으나 2026년으로 늦춰진 바 있다. 재개발이 길어지면서 등골집의 빈자리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재개발이 연장되는 동안 기존 상인들이 떠나며 공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상인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취재를 위해 직접 찾은 재개발 인근 지역은 한산했다. 한창 점심 때였지만 식사를 하러 온 학생과 주민의 모습은 드물었다. 가게 안은 손님이 거의 없어 보통 대학가 근처 상권에서 볼 수 있는 활기와는 사뭇 달랐다. 가게에 사람이 북적여도 학생, 주민이 아닌 인부의 모습을 찾기가 더 쉬웠다. 나름 대학가라는 명색이 무색하게 거리는 조용할 따

기다림 속에 사라지는 것들

름이었다. 재개발 과정에서 상인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재개발 보상 체계의 기본 근거가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증빙이 갖춰질 경우 손실 보상을 인정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재무제표와 같은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어렵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 필자와 인터뷰한 상인 역시 현실적으로 소송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나 지원금 요구는 포기한 상태였다. 정부는 상인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인들은 지지부진 지연되는 나날 속에서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재

개발이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공익을 이유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 또한 공적으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보장해야 할 것은 명목상의 청구권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 기반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단순히 건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의 생활 기반과 상권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재개발은 지역을 획일화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발길을 끌던 맛집은 과거의 산물이 되고 흔적만 남는다. 대학 근처에서 경험을 쌓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상의 소중함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그 가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 낙산에 올라

끝없이 새로고침 되는 유행, 내 취향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3월, 활기를 띠는 캠퍼스 풍경만큼이나 스마트폰 속 세상도 새로운 유행으로 분주하다. '두바이 존슨 쿠키(이하 두존쿠키)'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셜 미디어 피드는 '봄동 비빔밥' 먹방으로 도배되며 제철 채소 열풍이 불더니, 봄동 가격이 오르기가 무섭게 이제는 갈바속속 식감의 상하이식 디저트 '버터떡'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유행의 수명이 해가 갈수록 짧아지다 못해, 이제는 주 단위로 '새로고침' 되는 초고속 트렌드의 시대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숏폼 콘텐츠와 알고리즘이 있다. 자극적인 시각과 미각을 자랑하는 디지털이 호기심을 자극하다가도, 정반대로 소박하고 건강한 레트로 식단이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새로운 유행을 발

빠르게 경험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소비를 넘어, 또래 집단과 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적 화폐'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트렌드라는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유행을 뒤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나만 뒤쳐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포도(FOMO) 증후군을 겪곤 한다. "두존쿠키도 겨우 먹어봤는데 벌써 끝났어?"라는 누군가의 푸념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트렌드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감과 피로감을 안겨준다. 때로는 알팍한 상술과 결합해 만들어 낸 '억지 유행'에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새로운 문화를 가볍게 즐기는 것은

팍팍한 대학 생활에 소소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뒤쳐지지 않기 위해 '유행' 그 자체를 감각적으로 쫓게 되는 주객전도의 순간이다.

이제는 알고리즘이 떠먹여 주는 트렌드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기보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유행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채워주는 가치를 탐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어제는 두존쿠키, 오늘은 버터떡으로 변하는 유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과 삶의 템포를 단단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은서(문론 3)

■ 의화정

항저우에서 본 중국 AI·디지털 산업의 약진

나는 중국 지역 연구를 하면서 상하이와 항저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퍼지컬 AI, 디지털 기업 등의 산업 생태계를 관찰해 왔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뉴스나 보고서 통해 접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 기업과 산업 현장을 직접 볼 기회는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2025년 가을부터 국내 학생과 연구자,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항저우와 상하이 지역의 기업과 대학교를 방문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기술과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기업·대학교 사이의 기술 수요를 연결하는 매칭도 추진하고 있다.

항저우는 이러한 신산업의 대표적인 도시다. 이 도시에는 전자상거래, 물류, 금융, 클라우드, 인공지능 산업이 서로 연결돼

하나의 플랫폼 경제(또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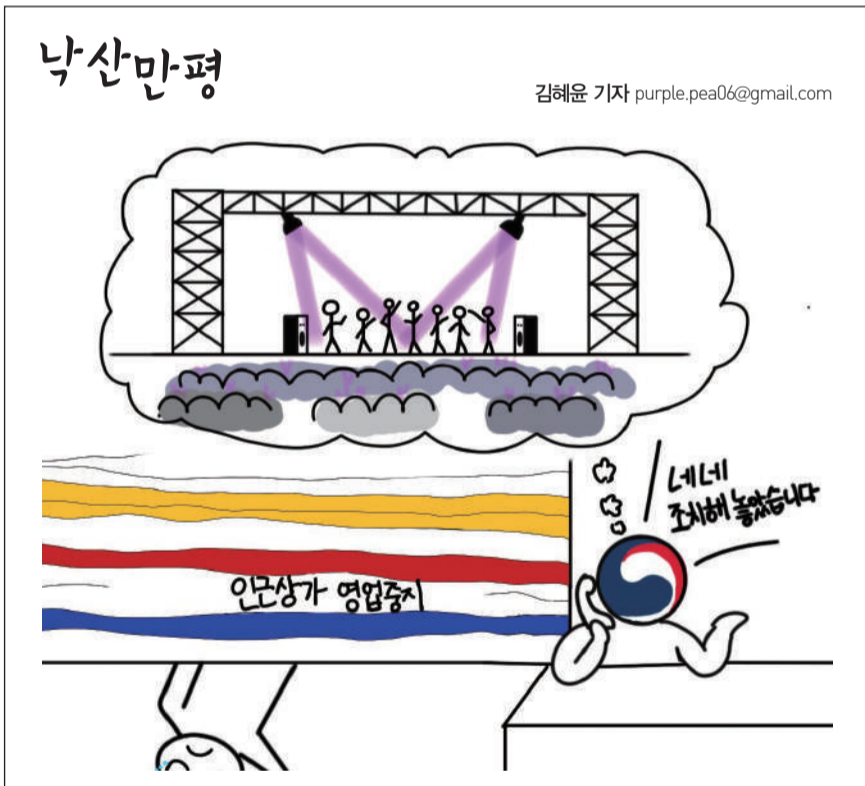
알리바바 회사를 방문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와 Qwen 시리즈의 대언어모델, 클라우드는, 반도체 개발 상황 등을 직접 접해보고, 또한 2025년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용 대언어모델 딥시크,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 「검은신화: 오공」을 개발한 게임사이언스, 뇌·바디 인터페이스 업체 브레인코, 사족보형 로봇 업체 딥로보틱스, 그리고 산업용 로봇 업체 선하오커지 등 다양한 기업을 직접 방문하면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중국의 기술 발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국가 전략이나 정부 주도의 산

업 정책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현장을 오래 지켜보며 느낀 점은 AI·디지털 산업은 오히려 민간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는 그 흐름을 가로막지 않도록 규제를 조정하거나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는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중국이 공학과 기술 분야에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공학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며,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역할 역시 결코 작지 않다.

박우(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기자사령

- 임수승(기자) 송사무엘(인문 3)
- 조수현(인문 2)
- 김가현(사회과학 1)
- 이예준(사회과학 1)

- 김세현(상상력 1)
- 황수민(상상력 1)
- 유가은(문론 3)
- 정지우(미래모빌리티 1)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제20회 사진공모전

프레임을 수놓는 당신만의 시선

모집 기간 | 3월 16일(월) ~ 4월 24일(금)
문의 | 02)760-4186



공지사항 바로가기

한성대신문